

민간정원 활성화 통한 지역명소 발굴

대전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2022.5.7.

경상남도 산림휴양과
2022.4.29.

대전시, 시민 주도 정원문화 확산 위한 민간정원 등록

대전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선정된 '대전의 숨은 정원 100선' 가운데 우수정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2개소를 민간정원으로 등록하였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뜻한다. 대전시는 정원의 구성이나 편의시설 내용과 운영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두 곳을 민간정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먼저 제1호 민간정원 '하늘강(대전 대덕구)'은 도에 체험을 겸한 정원 관람이 가능한 곳으로, 다양한 꽃나무 외에 계절마다 피는 야생화 등의 자연물과 갖가지 조형물의 조화가 아름다운 정원이다. 제2호 민간정원 '소나무풍경(대전 서구)'은 멋스러운 소나무와 식물을 돌보는 섬세한 손길과 정성이 돋보이는 정원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민간정원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록된 정원에 대해서는 공립나무병원 수목진료 컨설팅 등의 지원 방안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1호 민간정원 '하늘강'

출처: 대전시, (2022). 대전시 최초 민간정원 1·2호 탄생. 5월 7일 보도자료.



제2호 민간정원 '소나무풍경'

경상남도, 민간정원 22곳을 지역거점 관광자원으로 육성

경상남도는 경남관광협회 및 (사)경남민간정원협회와 함께 협의회를 통해 도내 민간 정원 22곳을 지역거점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산림청·거제시와 함께 '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최근 민간정원 4곳이 신규 등록을 마치면서 경상남도는 모두 22곳의 민간정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전국 민간정원의 30%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남부지역의 기후특성을 반영한 경상남도 내 민간정원은 다양한 난대식물과 열대식물 등을 갖췄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등록된 민간정원 18곳에 34만 명이 방문하였고, 이중 '섬이정원', '그레이트정원', '하미양정원'은 연간 6만~7만 명이 찾아 대표적인 민간정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경상남도는 '경상 산림휴양'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정원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